

겨울철 축산농가 가축 및 축사관리 요령

- 혹한기, 적정 사육온도와 사양관리 필요 -

■ 각 축종별 사육적온

병아리는 1일령에 체중이 36g 밖에 되지 않고 하한임계온도가 34℃이어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병아리를 입추 후 1-2일 동안은 34℃의 높은 온도를 맞추어 주어야 한다.

■ 겨울철 축사관리 포인트

- ① 단열 : 축사의 적정한 단열 유지하고 가축 사육으로 파손된 단열재 보수
- ② 섯바람 : 지붕이나 벽의 공간으로 공기 누출 방지, 윈치커튼에 구멍이 있으면 막고 커튼을 똑바르게 설치해 뒤틀린 부분으로 공기 유입 최소화
- ③ 환기 : 축사 내부에 순환팬을 가동하여 공기를 순환시켜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분리층 제거
- ④ 제어기 관리 : 타이머와 온도조절기 등 점검
- ⑤ 육성 : 육성하는 동안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족시킬 것. 특히, 어린가축은 정해진 온도로 첫 주를 사육한 다음 주령별로 온도를 내려주어 저온으로 인하여 발육이 지체되거나 또는 과잉 급온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없도록 주의
- ⑥ 환기량 : 음압을 측정하여 적정음압을 맞추어 주고 낮을 경우 팬을 한 대 더 설치하여 주고 높을 경우 입기구를 더 열어주기
- ⑦ 축종별 주령 및 축사 내부 환경에 따라 적절한 최소 환기량을 산정하여 환기



■ 가축관리 요령

산란계는 저온에 대한 저항력이 비교적 강하지만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산란율이 감소하므로 사료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계사는 노후화 되어 벽이나 천장을 통한 열의 방산이 많아 단열 효과가 낮고 환기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환경 조절능력이 크게 미흡하다. 기존 계사의 단열이 부족할 경우 우레탄 발포나 벽면 이중원치커텐 설치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노후화된 계사의 경우 남쪽벽면에 지붕 추녀에서부터 바닥까지 창문과 20cm정도의 간격을 두고 비닐을 쳐주면 단열계수 7.2의 뛰어난 보온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송풍기를 이용하여 외부의 공기를 강제로 유입시키고 유입된 공기를 송풍관의 작은 구멍을 통해 내부에 분산시킨다. 이러한 환기방식은 계사 내에 들어오는 섯바람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공기를 고루 순환시킬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가 실내의 따뜻한 공기와 섞여서 계사 내에 분산되므로 냉기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기시설이 미비한 계사 내에서는 겨울철은 계사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탁한 공기가 교체될 수 있으므로 하루 중 낮 시간에 10분정도씩 3~4회 위창이나 작은 팬을 사용하여 환기를 시키면 된다.

(출처 : 농촌진흥청)